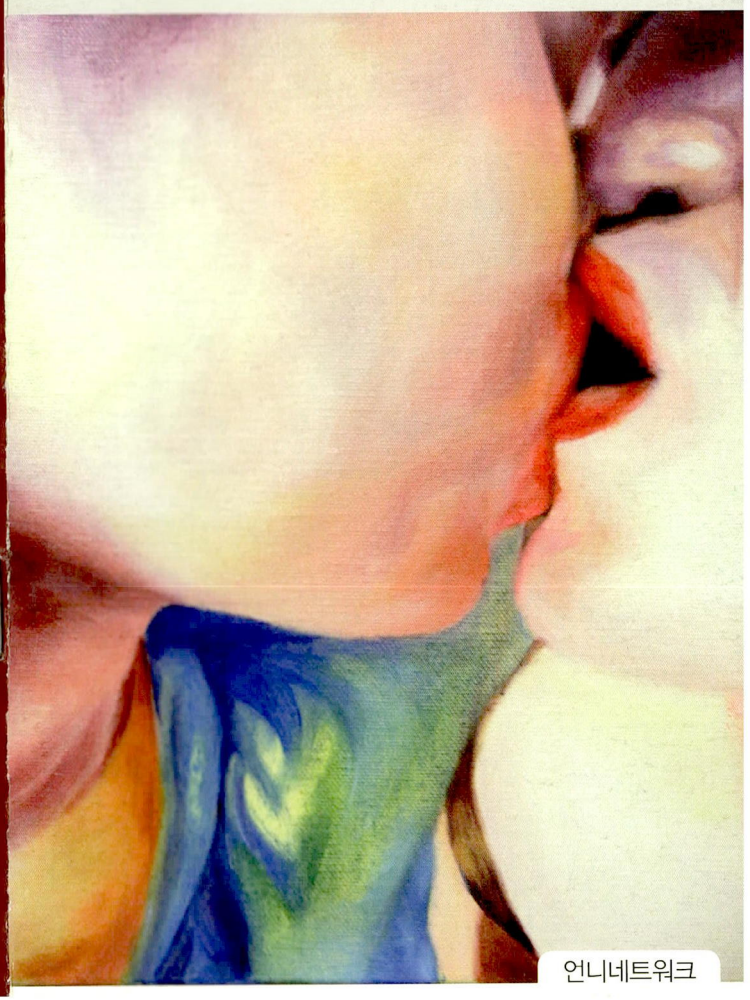
F

+ Feminist Fever



언니네트워크

2009 벤쿠버 영화제 경쟁부문 '용호상' 초청작

고양이들 영화

비혼 여성 싱크로율 105%

획일화된 가치관과 기준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비혼'이 갖는 의미는 크다. 〈고양이들〉은 언니네트워크가 그간 이슈와 사안으로 이어온 '비혼'을 주제로 2008년에 제작한 영화. 비혼 여성들의 이야기는 물론,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담고 있다.

여성 스태프들이 만든 영화

여성이 주축이 되어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낸 영화 〈고양이들〉의 전 스텝은 비혼을 지지하는 여성으로 이뤄졌다. 여성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작업한 것은 제작진 모두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Contents

기증

03 Prologue
04 매거진 페미 정치 Issue 체크!

특집 언니들, 여행을 떠나다
07 혼자 걷는 길, 그 발걸음을 응원하며
10 그 색여행기
14 지중 모칠 양과 까르네의 남미유랑
16 언니들의 여행산책
18 지진 여행, 순간들

언니들의 문화살롱
21 영화
23 음악
25 책

27 Epilogue

〈표지 이미지〉
칼로 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매거진 채널[넷] FF

@언니네트워크

만든이 언니네트워크
펴낸이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디자인 ThinkVirus Communication iCon
주소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4-17 101호
전화번호 02-3141-9069
팩스 0303-0799-1217 / 02-6497-9069
전자우편 unni@unninetwork.net / editor@unninetwork.net
홈페이지 www.unninetwork.net

이 책의 판권은 글쓴이와 언니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매품

Prologue

언니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어찌 밥은 먹고 살만하세요? 울컥, 올라오는 말들을 숨기며 남성과 공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이제 언니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읽을거리마저도 오프라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어떤 언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여성'이란 이름이 붙은 매체에 들어가려다 (아마도) 페미 정체성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래서 언니들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만 떠돕니다. 물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언니네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오늘까지 건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성의 주머니를 노린 수많은 매거진(패션, 가십)이 서점 잡지코너를 메우고 있는데 여성주의 매체는 왜 살아남을 수 없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페미니즘은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주로 남성) 몇몇의 말처럼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상위가 실현되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여성으로 사느라 지치고 고단해서 재미난 볼거리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질문에는 확실히 '아니'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여성주의는 거창한 운동의 영역에만 아니라 일상 혹은 문화에 자리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이미 언니네트워크에서는 그렇지요). 배울 만큼 배운, 빨갱이보다 더 무섭고 매사에 딴지거는 경직된 언니들이란 선입견을 깨트리고 어딘가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무장해 따라하고 싶은 기발한 모습으로요.

이 작은 책자는 언니네 채널넷과 그간 펴낸 책들에 실린 글들을 가려모으고, 여행 특집은 새로 구성해 넣었답니다. 언니네가 처음으로 펴내는 매거진인 만큼, 페미니즘을 잘 알지 못하는 언니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의견이나 소감은 언니네 사이트에 남기시거나 편집팀 메일로 보내주세요.

뜨거운 여름이 가면, MB 너머엔 보다 시원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을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들의 체증이 쑥 내려가도록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재미난 판을 벌여보지요.

가락

Before 여성학

뜬금없이

여성학을 처음 접했던 것은 20살, 대학교에 입학한 후였다. 수강신청을 위해 강의 계획서를 훑어보는데 교양수업에 보란 듯이 여성학이 심리학 개론과 제2외국어 사이에 '끼어있었다'. 남성학이 없다는 것은 그 때까지만 해도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성별에 따른 학문의 분류라고 하기에는 남성학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당시 여성학의 존재가 더욱 생뚱맞았는지도 모르겠다. 인문과학영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50개 이상인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여성학 하나였으니.

4년 후에야, '현대사회와 여성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여성학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나마 전에 들었던 여성학 강의 방식의 재탕이었다. 두 개의 수업 모두 동일하게 맑스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등, 4가지로 분류된 페미니즘 조류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여성인권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훑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여성학과 여성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들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별불문하고 여성주의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2학점짜리 교양수업 하나 채우고자 관심도 없는 강의를 선택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그 상황에서 무턱대고 그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것이다. 게다가 4년 내내 찾을 수 있는 여성학 관련 수업은 단 두 개라니, 측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범위의 여성학을 한평생 동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닌가.

대학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와 같은 암기 중심의 학문을 제외한 타 전공수업이나 교양수업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12년간 축적해온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 '정식'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학생들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 자격증(검정고시)을 들고 대학입학을 한다. 허나 유독 여성학만은 그런 과정 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성인이 된 이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홀로 싸우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비 오는 우울한 날, 나는 같은 반 남자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또 때렸다. 그 뒤로 비가 와도 주먹이 욱신거리지 않게 되기까지 근 6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시절 싸움꾼 인생의 한 장면이었을 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난 수도 없이 싸우고 다녔다. 아니, 전투를 했다고 하련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녀석들도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랬었지 싶다.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드세냐고 울부짖던 같은 반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니 말이다.

'여자애가 무슨 반장을 해, 여자애가 왜 이렇게 키가 커, 여자애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여자애기 왜 이렇게 남지 같아' 등등 어딜 가도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서러움이 나를 괴롭혔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지, 왜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는지 ……. 괴로웠다.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올바른 세상이라고 믿었기에 그 많은 적을 만들게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12년 동안 무엇보다 서글펐던 것은 남자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그 상황을 모른 척 하거나 오히려 눈총을 줬던 같은 반 여자아이들을 볼 때였다. 같은 여자라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성 싶은데, 매번 그 기대가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때는 그 아이들의 행동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육의 부실함 때문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백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길들여지는 '남성우월, 남성중심=정답'인 세상에서 그 잘못된 이치를 벗어나기란 힘겨운 일인데 말이다. 텔레비전을 켜도, 유치원을 가도, 선하디 선한 그림으로 가득 찬 동화책을 봐도 온통 같은 내용의 반복일 뿐인데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전제로 오직 좋은 성적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완벽한 행위이며 그 외에 모든 것은 대학 간 이후에 성취해도 된다는 교육을 20년간 받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녀는 평등하다'라는 개념은 저 멀리 어딘가에 처박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변화 요구하기

영유아기부터 차곡차곡 쌓여가는 인간의 삶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과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무언가'를 맞닥뜨릴 때 이에 철저히 물들거나 완벽히 배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그게 삶을 편하게 사는 법이란 걸 깨우치기도 하는 것이다. 설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 할지라도 변화는 두려운 것이며 도전은 언제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 차별이 습관처럼 익숙해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아기적 여성학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한창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평등함을 터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별난 성격' 때문에 자신이 속한 환경을 거부하는 아이들과 굳이 힘든 길을 가겠다고 용기 내어 보는, 여자들만을 위한 게 여성주의는 아니니 말이다. 또한 여성주의는 어딘가에 물들어 형성하는 일종의 사상이 아닌, 여성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크리스 _ 언니네트워크 회원

> Photo by 남색

언니들, 여행을 떠나다

여행과 여성주의의 만남이 특별한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경계인'으로 살아야 하는 외로움 때문인지, 이상과 현실 간의 아득한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 때문인지 떠남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이 풀고자 하는 고민 해결의 힌트들을 발견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일상의 공간을, 한국 땅을 떠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의 수만큼 다양하다는 말처럼 여행을 바라보는 페미니스트 언니들의 해석과 감정은 각자 다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특집 '언니들, 여행을 떠나다'는 여행을 경험한 언니들의 다양한 경험을 풀어내며 함께 '여행'을 꿈꾸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부디 이번 글들이 언니들의 마음에 바람을 넣어 언니들이 냉큼 여행 보따리를 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Special Article Travel >>

혼자 걷는 길, 그 발걸음을 **찬양**하라

"이번에 아시아를 6개월간 여행했어요."
"누구랑요?"
"혼자서 다녔죠."
"허걱 진짜요?! 여자 혼자서 위험하지 않아요?"

혼자 하는 여행 얘기를 누군가(=여성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 풀어놓으면 이처럼 항상 예상할 수 있는 대사들이 나온다. 여자 혼자 위험하지 않느냐, 난 무서울 것 같다, 그래도 혼자 그걸 감행(?)하다니 멋지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발끈하기보다 왜 사람들은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특히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저리도 대단할까 싶은 호기심이 앞선다.

그 공포증의 본질은 물론 '여성은 보호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관념, '아버지의 지붕 밑에서 안전하게 운신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가부장적 문화의 선심(?)에서 비롯된다. 익숙지 않은 공간에 홀로 뚝 떨어졌을 때 여성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비좁은 노파심, 여성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그 놈의 못된 우월감 탓이다. 그렇지만 한번 길을 떠나면 의외로 수많은 '나홀로' 여성여행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즐거운 여행을 심지어 아주 장기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물론 이건 여성(주의자) 여행자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오래된 이야기이다. 여성은 충분히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수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짚어주었다. 이것을 막는 가부장들의 목소리도 열심히 반박 혹은 무시해왔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이 왜 혼자 여행하는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솔직담백하게 털어놓고 싶다.

사실 여성주의자가 혼자 여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여성주의자들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혼자 여행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뿐이다. 내 경우 생애 최초로 혼자 여행한 것은 스물 두 살 때 보름 간 스페인을 돌아다녔던 일이다.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의 공중전화박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나 혼자예요"라고 고백했던 일이 기억난다(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친구와 함께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참이었다. 혼자 스페인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셨다나 뭐라나).

"다른 이들과 일정과 동선을 함께 짜야 하기나 이것저것 간섭받는 일이 번거롭고 버거워서이기도 했지만 나에게 있어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결국엔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것이기도 했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길에서 '어린 동양 여자애'로 무시 당하지 않고 혼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야 했다.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일에 울렁증이 심하고 최악의 길치인데다가 외로움을 심하게 타는 나로서는 일종의 비위강화훈련의 일환이기도 했다.

스스로 진행한 훈련은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게 끝났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스페인 여행 이후로 혼자서 제법 많은 여행을 다녔다. 한 달 간의 베트남-라오스 여행, 휴가를 내서 잠시 다녀온 일본 여행, 그리고 긴 연휴가 있을 때 KTX를 타고 통영으로, 천안으로, 부산으로 쏘다녔다. 그리고 작년에는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 간 장기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다. 나홀로 여행은 혼자 해냈다는 성취감과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를 스스로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혼자 길을 정처 없이 걷고 있을 때 다가와 '좋은 데 데려다 줄게' 라며 손짓하는 오토바이 탄 남성들, 혼자라는 것이 '나 외로워요'를 온 몸으로 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나잇을 노리며 다가오는 서양 남자 여행자들, 그리고 한국 여자 혼자 여행하는 것을 고깝게 보거나 혹은 두려워 하는 한국 남자 여행자 무리들, 성추행을 시도하는 인도 경찰관 아저씨들……,이들을 만나는 일련의 경험들 속에서 나는 '너 따위 것들을 두려워할 쏘냐' 라는 내공(?)을 쌓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맺기하는데 있어서의 전략들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길 잃고 헤매는 한국 남자 여행자 무리에게 오히려 길을 알려주는 선배 여행자로서의 통쾌함을 맛보기도 하고, 깊은 산 속에서 단 둘이 트래킹을 하다가 '라오스 남자친구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며 흑심을 내보인 가이드에게 호통을 치며 쫄게 만들어 스스로의 강인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세계 공통으로 어떤 대상물로 역할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그리고 동양인 여자 혼자 여행한다는 것에 호기심을 보이는 현지 언니들과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고 '알고 보니 너도 페미니스트였구나!' 라는 '커밍아웃'으로 전세계 각지의 페미니스트 여행자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은 여성주의자로 혼자 여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고 피곤할 일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경험의 스펙트럼을 통해 그보다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여성여행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이자 정보공유사이트인 저니워먼(http://www.journeywoman.com)은 '여성들은 평소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운신의 폭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남성 여행자들보다 사고를 당할 확률이 적다' 고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중심의 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한 제한의 틀이 여지 없이 전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또한 남성들이 말하는 '위험한 길' 이 실은 나를 일개 '여자애' 로 간주하는 한국의 일상 공간을 벗어나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는 '대안의 쉼터'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당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해요' 라는 당당함을 몸소 깨닫게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학하며 혼자 여행 갈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여성주의자 언니들, 어머니, 자매, 기타 여행길에서 만난 '여행자 유전자' 를 지닌 다양한 여성들과 마음이 맞는다면 그 여행이 혼자이건 둘이건 열이건 무슨 상관이랴. 여행 3개월 째인 베트남에서 외로움에 지쳐 터덜거리며 까페에 들어가 앉았을 때 목격한 (복장(?)과 수다의 내용으로 봐서는 영락 없는) 30~40대 페미니스트 여행자 무리를 보며 나이가 들면 여러 여성주의자들과 장기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새로이 하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여행 목적지를 상상하며 그리는 그림 속에는 여전히 나 혼자다. 더 부딪혀보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내공을 쌓아서 '훌륭하고 든든한 여자어른' 이 되는 장래희망을 실현하는 걸 한번 더 스스로 시험해볼 작정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타인과 여행하며 나 자신을 어느 정도 길들여야 하는 배려심이 여전히 고집스럽게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일까. 이유가 어찌되었건 아직까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당분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해방감과 에너지를 선사하는 길을 떠나는 것이라면, 혼자 하는 발걸음이 그리 두렵지는 않으리라는 얼마간의 믿음이 쌓인 덕이다. 그리고 혼자 나서는 길에 마초들이 달려들고 험난한 여정이 지속되어도 언젠가는 동료 여성 여행자들을 만나 위안을 얻으리라는 기대감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 나에게, 그리고 아직도 혼자 나서는 길을 두려워하는 많은 언니들에게 고한다. 혼자 떠나라. 온통 예측불가능한 멋진 가능성들, 그리고 돌아와 좀더 내공 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고동(이윤수련)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연예술에 푹 빠져 무용공연과 축제기획에 '낚임'.
관객들과 행복하게 만나기 위해 5년째 최저임금과 야근을 눈감아주는 서른 즈음의 페미니스트.
가끔 일하지 않을 때는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27리터짜리 작은 배낭에 짐을 싼다

외로우세요? 정말?

4색 여행기 _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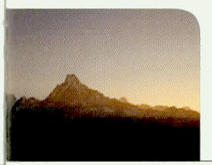
스물 다섯, '간다' 라는 생각만으로 인도로 떠났다. 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일정은 그날 세웠고, 풍광이 마음을 흔들면 주저 없이 기차에서 내렸다.

'넘넘한 일정' 이라도 이를 소화하는 입은 녹록지 않았다. 어설픈 영어 하랴, 낯선 광경을 담아 안으랴, 먹을 것, 잠잘 곳을 해결하고 낯선 이들의 친절 속에 숨겨진 의중을 의심하랴……. 처음 한 동안은 새로움에 마냥 신났다. 혼자 여행하는 동양여자가 궁금한지 어디를 가든 누군가 말을 걸어왔고, 짧은 인연의 다정한 친구들이 계속 나를 지나갔다. "No Problem!" 으로 대변되는 인도식 낙천주의도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내 사고 틀을 분주히 두들겨댔다.

연착으로 유명한 인도기차를 제대로 경험한 그날, 7시간이나 보팔역 플랫폼에서 하염없이 기차를 기다렸다. 두어 시간을 안절부절못하고 나니 마음이 절로 비워졌다. 배낭 옆에 털썩 앉아 사람구경을 시작했다. 옷가지며 과일을 한 짐 사든 인도아저씨, 분주히 다니는 꼬마들을 이리저리 챙기는 어머니, 배낭여행을 하는 연인들의 깍지 낀 손……. 나도 모르게 그들의 표정을 따라 지었다. 내 손바닥에는 있을 리 없는 타인의 온기가 스쳤다 사라졌다. 문득 외로움이 엄습하며 여행의 온전함이 깨지기 시작했다. 외로움이 바짓단을 적시며 서서히 올라오더니 어느새 심장에까지 이르렀다. 내 살붙이들과 벗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자꾸만 여행의 근사함을 좀먹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외로울 일은 없었다. 이야기 나눌 이가 있고, 생각할 것도 그득했으니까. 그런데 난 스스로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갖지 못한 '결여자' 로 보고 있었다. 돌아보면 그때의 고독은 타인에 비춰진 상대적 결여와 '외로운 자' 로 머무르고 싶지 않은 나의 허영 때문이었다.

서른 초입, 비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나는 결혼해 아이를 낳는 사촌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까닭 모를 중압감과 무능함도 느꼈다. 초조함에 결혼과 타협을 상상하던 차에 인도여행에서 겪었던 외로움을 떠올렸다. 타인이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느라 나를 잃었던 바로 그때를.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니 불안증도 사라졌다.
혼자 하는 여행과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자신의 본질과 만나려 하나 끊임없이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그렇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이 내 숨을 대신 쉬어주진 않는다. 나는 내 허파로 숨을 쉬는 존재니까. 내가 이 깨달음의 기억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결혼' 을 위해 주변의 남자들 목록을 만들고 검토하는 건 웬만한 남량특집보다 훨씬 더 오싹한 일이니까.

바리 _ 고리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활동가



여행의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4색 여행기 _ II

에피소드 하나. '배낭여행객들의 천국' 이라 불리는 태국 방콕의 카오산 거리. 밤새 휘황찬란한 불빛을 밝히는 술집 앞에는 당연한 듯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물론 남성들도 있다). 몇 번쯤 방콕을 방문하며 느낀 건 이 호객행위가 점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술집을 홍보하는 언니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언니들의 옷은 점점 짧아지고, 언니들의 동작은 점점 에로틱해지고……. 그런 언니들의 몸을 쓰윽~하고 더듬으며 지나가는 남자 섹히들을 분당 수십 명씩 보며 걸어야 하다니! 유독 그런 남자 섹히들이 눈에 밟히던 어느 날, '이건 고문이야' 를 외치며 도미토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며, 여자 혼자 여행하는 어려움에 대해 신나게 떠들던 한 (한국 여성) 여행사에게 이 불편함과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랬더니 이 언니 왈 "그러게. 남자들 미친 거 아냐? 무슨 병이 옮을지도 모르는데." 헉! 급히 내 말뜻은 그게 아니고, 나의 불편한 지점도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다시 설명했다. 내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건 그 언니들이 아니라 남자 섹히들이라고. 그랬더니 이 언니, 놀랐다에서 뭔가 알겠다로 그리고 가소롭다로 순식간에 표정이 변하더니 나에게 한마디 던졌다. "너, 페미니스트야?"

에피소드 둘. 태국에서 '꺼따이' 라 불리는 MTF(Male to Female)를 만나는 일은 무척 자연스럽다. 슈퍼에서 카페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생활인' 으로 살아가는 MTF를 마주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태국은 우리나라만큼 MTF를 대하는 태도가 야만적이지 않아 보였다. 어느 날 같은 도미토리에 묵었던 네 명의 친구들과 술집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중 (나 빼고) 제일 나이가 많고, 태국 여행을 많이 한 잘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었다. 나의 게이다(gay+radar)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게이!' 라는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호감이 갔다. '여행' 에 대한 시시껍적한 이야기들이 한참 오간 후 그는 매우 뜬금없이 "태국에 왜 꺼따이가 많은 줄 알아?" 라는 질문 아닌 질문을 던졌다. 다른 친구들은 여행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나는 내 게이다의 정확도를 가늠하기 위해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어쨌든 모두들 눈을 반짝이며 그에게 집중했다. 뜸을 좀 들인 후 그가 꺼내 놓은 대답이란 건 이랬다. "현지인한테 들은 건데, 군대 가기 싫어서 그렇대. 웃기지?"

난새 _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발길 따라 오랜 것들을 찾아

4색 여행기 _ III

이 글은 2008년 초에 서해안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 11일 동안 각지를 여행한 기록 중의 일부이다. 시작과 끝, 몇 군데 경유지만 정한 채 구체적인 코스는 그때그때 정한 무규칙 여행이었다고나 할까.

여행의 첫 기착지로 군산을 찜한 것은 일제시대부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그 빵집, 이성당의 빵맛을 보겠다는 소박한 이유였고, 옛 빵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느 신문에 실린 '자연 발효된 달콤한 악마들이여' 라는 기사 때문이었다. 군산에 도착해 고픈 배를 채우고 이성당으로 가는 길부터 찾았다. 모르는 이가 없었고 친절함에다 뿌듯함까지 덧붙여 빵집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밥집 주인도 그곳 빵을 먹고 자랐는지 "참 잘해요" 라는 표현을 썼다. 빵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여행의 로망 중 하나였던, '시골 미용실에서 뽀글퍼머하기' 를 실행에 옮겼다. 군산 시내 복판이긴 했지만, 모 드라마에서 화제가 됐던 '김희애 스타일' 을 주문했다. 김희애의 소녀시절을 연상케 하는 부푼 양배추 머리로 드디어 이성당에 입성. 늦은 저녁 빵집은 한산했다. 서울의 웬만한 대형빵집만큼 구색이 다양했고 유기농 재료를 쓴 빵도 많았다. 기자는 빵집의 역사와 한결같은 맛이 담긴 팥앙금빵과 소보루빵을 먹어보라 했지만 다른 빵에 손이 갔다. 군산 시민인 양 매장 뒤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빵을 먹었다. 건너편 앤틱풍의 의자에서 나이 지긋한 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분들이 젊었을 때 여기서 미팅을 했으리라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숙소인 허름한 모텔은 방음이 안 되었다. 군산항 노동자들이 일수나 월수로 묵는 곳인 듯했다(숙박비는 심지어 만오천원!). 군산의 첫 밤이 지나고, 여행은 요가와 스윙댄스, 템플 스테이, 문학기행 등 도저히 묶을 수 없는 다채로움을 자랑하며 이어졌다. 마지막 코스인 충주로 가는 길에 경북 김천에 들렀다. 역전 뉴욕제과는 소설가 김연수가 빵집 막내아들로 성장기를 보낸 곳이다(자전소설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 의 무대였던).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뉴욕제과는 보이지 않았다. 다리가 아파 쉬다가 검색을 해보니 이미 오래 전에 없어졌다고. 옛 방식으로 빵을 만드는 제과점이 대규모 베이커리의 공세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고 일손도 부족해 빵집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김천에서 한때는 가장 큰 빵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니 맘 한 구석이 아려왔다. 옛 것의 자리를 대체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 그 거대한 물결은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었다. 나는 무엇에서 '다시 글을 쓰고, 살아갈 동력을 얻었' 던 걸까(그 무렵 그런 글귀를 썼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꿈같은 여행을 담은 사진마저 남아있지 않은 지금, 다시 여행의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가락 _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유레일패스는 잃어버렸어도

4색 여행기 _ IV

2009년 4월, 난 내 인생의 숙제로 여겨졌던 유럽여행을 떠났다. 서른넷이란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내 가슴을 팽팽히 조여 왔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을 잠시 경유하고 런던 히드로(Heathrow) 공항에 도착! 첫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자유여행이 주는 여유로움을 마음껏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흔히 여행가이드에 나오는 꼭 가야한다는 곳에 다 들르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았다. 급기야는 일정을 수정해 런던에서 만난 커플들과 자동차여행을 떠나기 위해 밤 버스를 타고 파리로 향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20대에도 하지 않았던 캠핑장에 텐트 치고 자고 손수 밥해 먹는 오토캠핑을 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로 일정 내내 스위스에 가면 입으려고 준비했던 오리털 점퍼를 벗을 수 없었고 밤이면 밤마다 뜨거운 물을 끓여 침낭 속에 두고 자야 했다. 하지만 어쩌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과 경험이라 생각하니 뼛속까지 파고드는 때늦은 추위도 그저 고맙기만 했다.

그런데 체력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자면 소원이 없겠다는 주문을 외우게 됐고, 3주가 조금 못 되던 어느 날, 난 스페인 남부 세비야로 가기로 한 커플들과 헤어져 마드리드로 갔다. 마드리드에서 며칠, 바르셀로나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다.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스페인에서도 일정을 순조로이 소화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여행의 묘미가 이런 것일까? 일정에서 유일하게 숙소 예약이 되어 있지 않던 어느 하루, 머피 법칙은 제대로 들어맞았다. 도착한 엑상프로방스의 관광 안내소는 문을 닫았고, 버스를 호스텔 반대 방향으로 타더니, 개시해서 딱 두 번 쓴 유레일패스를 잃어버린 것이다. 평소에 물건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는 나로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

엑상프로방스 역에 다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레일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 역무원은 마침 내가 탔던 기차가 파리 행이었다며 파리에 가면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난 유레일패스를 잃어버린 경위를 다시 설명하기 힘드니 프랑스어로 편지를 써달라고 역무원에게 부탁했다. 테제베 본사까지 찾아갔지만 나는 유레일패스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여행 일정을 3달에서 한 달로 줄여야 했다. 파리만 세 번 갔다! 하 하 하! ㅠ.ㅠ 테제베 본사까지 가보는 흔히 할 수 없는 경험과 함께 프랑스어로 쓴 편지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여행 기념품이 되었다. 얻으면 잃는 게 있고, 잃으면 얻는 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행 중에 고스란히 경험하고, 여행으로 얻은 풍부한 경험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잔고를 보며 든든한 웃음을 짓게 한 경험이었다.

김은정 _ 늘 여행을 꿈꾸는 몽상가

Cart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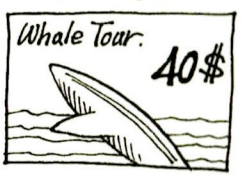
그림_모질양

모질양과 까르네의 남미유랑

서커스 고래

에콰도르의 Puerto López에 고래를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Humpack 고래 시즌이라서…

투어 회사 광고판을 보고



개뻥치지 말라고 해!
고래가 무슨 돌고래도 아니고
서커스냐고욤~

하지만 정말 배를 타고 나가서
아. 아름다운 고래님들의 잔치가 …

모질양과 까르네의 남미유랑

무지개 잔치

페루와 볼리비아에는 무지개색 옷이 많습니다.
여자 둘이 함께 다니는 것만 보면…

저봐, 저봐!
저 언니들 가방이 무지개야.
티셔츠도… 우훗우훗 ^~^

심지어 남자. 여자가 같이 다녀도…

저 남자는 G고 언니는 L이야.
그지. 그지? 응응응 ^~^

알고보니 잉카(타완틴수요) 제국의 깃발이 무지개라서

페루와 볼리비아의 수많은 기념품들이 무지개색이더군요.

언니들의 **여행강추**

여행을 좋아하는 언니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면
편리한 물품과 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을
몇 가지 조언해봤다.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면 유용한 물품 몇 가지

빨래 줄, 빨래 집게
장기여행이든 아니든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늘 빨래 할 일이 생긴다.
가방을 묶는 와이어를 준비해 가면, 다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수건
고온다습한 지역으로 떠난다면, 때수건은 필수!
샤워타월로도 사용 가능하다.

개인 컵
전세계 어디에서도 일회용품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여행자의 매너.
개인 컵을 이용해 호텔 등에서 물을 챙겨두면,
쓰레기도 줄이고 물값도 아낄 수 있다.

스포츠수건
수건은 이래저래 사용할 일이 많다.
특히 스포츠 수건 한 개면 여러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손톱깎이, 맥가이버 칼
다기능 도구인 맥가이버칼을 갖고 다니면 요긴하게 사용된다.
단 출입국시 몸에 지니고 있다간 압수당하기 일쑤.
비행기를 탈 때는 꼭 부치는 짐에 넣도록 하자.

> Photo by 남새

여행 시 알아두면 편리한 일들

옷
여행 갈 때의 명언 하나.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모자란 게 돈이요, 아무리 적게 가져가도
남는 게 옷이다.' 한국보다 물가가 싼 지역으로 여행한다면,
현지 옷을 구입해 입는 것도 좋다.

헤어컷
장기여행 시에는 현지에서 머리를 자를 일이 생긴다.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곳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평소보다 조금 더 짧게 머리를 자르고 가자. 미국이나 유럽 등
미용실 이용료가 비싼 곳에서는 여행객들끼리 서로 머리를 잘라주기도
하니 동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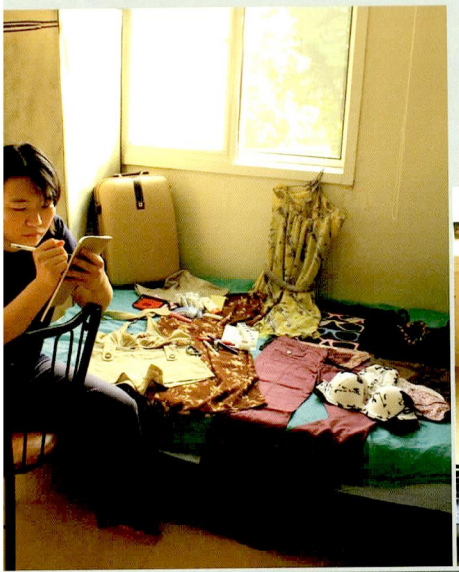
위급상황 대처
각 나라의 한국대 · 영사관 연락처는 반드시 알아가자.
낯선 사람에게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항생제
나라별로 약품도 조금씩 달라서 내게 맞는 비상약품은
챙겨가는 것이 좋다.
특히 의약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 갈 경우,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넉넉히 챙겨가는 센스도 필수.

가방, 돈 보관방법
가방을 몸에서 떨어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돈은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분실이 걱정된다면, 현금보다는 여행자 수표를 이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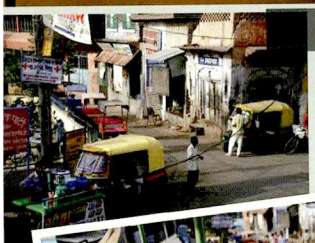
여행자 보험
몇몇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하면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들어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서 미리 신청하자.
공항에서는 더 비싼 보험만 판매한다.

여행, 순간들



'그녀'들과 길 떠날 채비를 하는 물품들. 달라보이면서도, 비슷하기도 하고 style! 그녀의 style이 보인다.

← ↑ 사진_해송



← ↙ 사진_케이

여행지에서는 호랑이티셔츠도 뱀피남방도, 하와이안셔츠도 모두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발등에 멋진 선탠 자국을 남기는 조리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안전한 스쿠버다이빙을 위해 입수 전에 다이버 책을 읽는 것도 필수. 이번 여행에선 또 어떤 물고기와 산호들을 만나게 될까요. 여성운동을 열심히 한 당신이라면 바다거북을 만나는 행운이 따를지도요! 〈상단 오른쪽사진〉

사진에는 없지만 여행 동안 내 짐의 큰 부분은 고추장과 고시히까리쌀, 주걱 같은 것들이었다. 이것만으로 갈증이 풀리지 않았던 나는 볼리비아 라빠스에서 어느 한국인이 두고 간 김을 몇 장 훔쳐먹은 적도 있다. 멋진 옷을 입고 걷더라도 여행자의 본분은 훔쳐먹는 김맛 같은 게 아닐까 ㅋ 〈상단 왼쪽사진〉

사진_케이 ↑

사진_케이 ↑

세 달짜리 내 여행은 그리 길진 않았지만 그리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인도에서의 시간이 더해갈수록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당혹스러움이 익숙함으로 변해갔다. 돌어저라 내 얼굴을 쳐다보는 인도 사람들의 진한 눈에도 익숙해져갔고, 거리에서 풍기는 똥냄새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마치 내 집 앞처럼 좁디좁은 인도의 골목길들을 익숙하게 걷기도 하고, 인도친구들과 어울려 달콤한 짜이를 마시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다. 낯설었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과정, 그 느낌은 여행이 주는 최고의 짜릿함이 아닌가 싶다. 사진 속에 여행으로 일상을 살았던 흔적이 남았다. 투박한 양동이에 물을 받고 빨래감에 비누칠을 한 뒤 조물조물, 물기를 없애고 빨래 줄에 널어놓기. 나란히 걸린 옷들이 다정하다. 여행 속의 일상의 시간들이 그립다.

혼자 여행하는 여자라서 좋은 점은 이 땅을 사는 여자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친지의 출산을 기념하며 모인 인도 오르차의 언니들. 색색의 사리 복장이 너무 고와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냐고 부탁했더니,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허락해주었다. 홀로 여행하는 내가 신기해 보였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다. 더듬더듬 짧은 영어로 대화하느라 애먹었지만, 말로 나눈 것보다 소중하고 그리운 기억은 함께 깔깔대며 웃던 반짝이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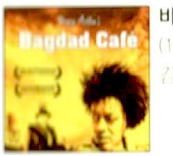
언니들의 문화살롱

여성주의에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여성주의에 입문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눈치빠른 언니네트워크가 그런 언니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갓 페미니즘에 발을 들인 사람들을 위한 영화, 뮤지션, 책 등을 소개한다. 소개된 목록들이 기존 남성중심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여성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영상, 음악, 글로 만나면서 더욱 발화되고 여성주의 내공을 더욱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Culture Salon >>

> Photo by 난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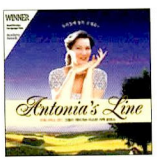
바그다드 카페
(1988) & 연어알 (1991)
감독 : 퍼시 애들론

올란도
(1992) & 탱고 레슨 (1997)
감독 : 샐리 포터

내 어머니의 모든 것
(1999)
감독 : 페드로 알모도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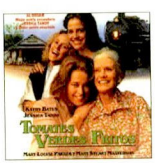
피아노
(1993)
감독 : 제인 캠피온

제인 캠피온의 영화들 중, 칸느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피아노〉가 가장 유명하지만, 이전 호주에서 만든 초기 작품들을 베스트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과 섹스, 가족 간의 문제를 전복적인 여성성을 통해 이야기하는 특이한 영화 〈스위티〉, 외모로 인해 외면당하던 여성이 문학을 통해 자신의 '말'을 찾고 작가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그린 〈내 책상 위의 천사〉가 바로 그 작품들. 〈피아노〉 이후, 〈여인의 초상〉 〈홀리 스모크〉 등을 통해 여성의 육체, 여성적 감수성과 판타지, 정체성의 문제들을 꾸준히 다뤄오고 있다.



안토니아스 라인
(1995)
감독 : 마린 고리스

안토니아의 가계에는 혈연관계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 함께 기르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가해자 응징에 나서지만 이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씨를 뿌리고 거두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가는 그들은, 권위가 지배하지 않는 풍요로운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한 웃음을 나눈다. 그것이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1991) & 그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2000)
감독 : 존 애브넛

이제는 고전이라 불리워야 할 영화. 엇지와 루스, 두 여자들간의 사랑과 그들의 식당을 둘러싸고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여자들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를 감독한 존 애브넛 감독이 제작한 여러 영화들 중 하나가 〈그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연결되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여섯 여자들의 이야기들. "하긴 여자의 인생이 관심거리나 되겠어."라고 읊조리는 그녀들의 삶. 그러나 그것이 주는 공감의 힘과 여운.

조제 _ 언니네트워크 회원

Music

Veruca Salt

보컬, 기타를 맡은 두 여성이 등에 줄을 달고 붕붕 날아다니며 시원스레 노래하는 Volcano Girls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그녀들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던 (예,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도…….) 깔쌈 밴드. 여성음악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진 브리더스Breeders와 픽시즈Pixies의 거친 사운드를 좀 더 대중적으로 소화했다는 평을 듣는다. 히스키하면서도 소녀의 미성을 동시에 가진 보컬의 복소리가 매력적이다.

Le Tigre

유쾌하고 나긋한 멜로디와 저항소녀 이미지가 여전한 보컬, 페미니스트임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배짱이 시원스런 밴드다. 놈들 보기엔 선동적일지 모르나 자기들 근성이 없는 페미니스트들에겐 통쾌하기 그지없는 보석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90년대 라이엇 걸 씬의 대표주자인 비키니 킬Bikini Kill의 캐서린 한나Kathleen Hanna가 비키니 킬 해산 이후 결성한 밴드이며 첫번 레이블 Mr.Lady에서 2장씩의 앨범, 싱글 ,EP를 발매했다.

L7

페미니스트 필수아이템 고심하지 않을 수 있는 영화 〈탱크 걸〉에 삽입된 shove를 작업한다면 한 번쯤 언급되는 밴드. 단순 박력미의 사운드와 그런지한 보컬이 대중적인 호감을 얻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무대에서의 찡난리가 눈에 선한, 안 봐도 비디오의 전주를 보여주는 듯. 90년대 라이엇 걸 씬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받았으며 2000년에 베스트 앨범이 출시되기도 했다.

P.J. Harvey

이만한 내공을 지닌 목소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목소리든 사운드든 '곱다' '아름답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 거칠기 그지없는 이 언니의 음악은 뭔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구석이 있다. 때때로 보이는 주술적인 느낌의 눈빛과 손짓은 마녀적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92년 'To Bring You My Love'로 데뷔한 뒤 지금까지 독특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왔다.

Hole

여성 뮤지션의 대명사격인 홀은 보컬 커트니 러브Courtney Love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와 저항적 이미지의 사운드, 과감한 무대매너로 두꺼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은 종종 이들의 음악보다는 다른 것들(대표적으로 프론트 우먼 커트니 러브의 이런저런 행적들)에 꽂히기 일쑤였고 음악적 성과까지 폄하하기도 했으나 이쯤은 '언니말살 프로젝트'에 동원된 가부장적 마초 지랄의 교묘한 술책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어쨌거나 중요한건 이 밴드의 음악이 가끔 처절하게 가슴에 꽂힌다는 것.

Tori Am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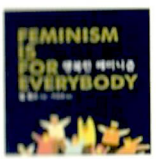
유명하고도 유명한 'Somewhere over the rainbow'의 토리 에이모스 버전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녀의 음색의 매력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사운드의 언니들과는 또 다른 호소력을 지닌다. 깨끗하고 맑은 청량감을 지닌 그녀의 음악은 한편에 우울함과 슬픔을 간직함으로써 밑바닥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데, 'Me And A Gun'에서 자신이 당했던 강간 경험을 가사에 담아 가녀린 음색에서 나오는 깊은 용기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푸하 _ 언니네트워크 자문위원

Book

페미니즘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글/ 수잔 앨리스 왓킨스,
그림 /마리사 루에다
번역/ 이소영, 1998 이두아이콘총서 3

페미니즘이 대중되기 이전시대부터,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의 여성운동의 대동을 보여주고, 그 특징적인 사건들을 만화의 형태를 빌려, 인물 사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분파와 입장, 페미니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예리한 분구와 사진 삽화를 통해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행복한 페미니즘
글/ 벨 훅스
번역/ 박정애
2002 백년글 사랑

벨 훅스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는 운동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페미니즘에 관해 왜곡된 시선과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모든 대중이 이 책을 통해 페미니즘을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돕고있다. 이 책은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계급, 일, 폭력, 결혼, 의식화, 미래에, 봄 등을 쉽고,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내가 생각해왔던 페미니즘과, 그 동안 해왔던 운동의 과정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간 고민했던 문제들을 한곳 집어서 서술하고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책이다.

새 여성학 강의
글/ 한국여성연구회
1999 동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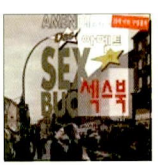
이 책은 철학과 철학함, 신과 사람, 노동, 법, 문학 등 각 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짚어내고 있다.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들어나는 여성 차별 이론들과 그것의 배경 그리고 그것의 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여성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이다.

자기만의 방
글/ 버지니아 울프
번역/ 이미애
1990 도서출판 예문

1882년에 태어나 1941년에 생을 마감한 버지니아 울프는 그 사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여성으로서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는 그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결코 한 순간도 잊지 못하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해 드러낸다. 여성에게 돈과 자기만의 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명되었고, 현재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갖길 원하는지, 그리고 갖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에세이다.

이갈리아의 딸들
글/게르드 브라튼베르그
번역/히스테리아
1996 황금가지

풍부한 상상력의 페미니즘 소설. 현실의 남녀 성역할 체계와 반대의 이갈리아라는 가상의 사회를 통해 현대의 가부장제를 풍자하고 있다. 현실에서 여성을 woman이라고 하여, man의 종속물처럼 여겨지게 하는 단어를 비꼬아 남자를 멘음, 여자를 움이라고 하고, 현실에서 여성이 브래지어를 하는 것처럼, 이갈리아에서는 남성들이 성기를 받치기 위해 페호라는 옷을 입는 등, 글 사이사이에 페미니스트로서 작가의 재치가 구석구석 담겨 있다. 읽는 동안 즐거운 상상과 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현실을 좀더 직시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섹스북
글/ 귄터 아멘트
번역/이용숙
1995 박영률출판사

아멘트 박사, 30대 미혼여성이며 직업인인 울리케, 17세 소년 카이 우베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 사랑,결혼, 낙태, 에이즈 등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결혼제도, 자본주의 사회의 성상품화, 몸에 대한 결정권, 성적 소수자에 관한 차별들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재미있고 날카롭게 기술하고있다. 책 구석구석 담겨있는 사진 및 삽화는 그들의 생각을 풍자적으로 재치있게 묘사하고 있어 재미를 더한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던 성에 관한 지식을 얻 수 있는 필독서.

푸근 _ 언니네트워크 회원

Epilogue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설렘이죠.
FF를 만나는 언니들도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길. ^^
- 난새

매거진을 만들자는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식겁했던 기억이 난다.
열정의 난새~~! ㅎㅎㅎ -_-;;
편집하느라 밤을 깊어가고 취기도 덩달아..... ㅋㅋㅋ
여행도 즐겁다. 만세! ^^
- 코린

'만들기' 와 '나누기' 의 즐거움.
다시 한 번 열정을 불러일으켜 준 채널[벗]에 감사한다.
바쁜 시간 쪼개 디자인에 열과 성을 보여준
Think Virus에게 특별한 감사를!!
- 레모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이름 올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네요.
네그러운 언니들께 무한감사 드립니다. :)
함께하게 되어 기뻤어요. 앞으로는 실속있는 일꾼이 되도록 할게요.
- 아난